

# 정부 “日, 오염수 방류 한국 전문가 참여 크게 반대 없어”

“실무협의의 구체적 협력방안 공감...한차례 더 회의후 마무리”

“日, 한미일 정상회의 지지 표명 요구 언론보도는 사실 아냐”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이뤄진 한일 실무자급 협의와 관련, “지난달 1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8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한일 실무 기술협약이 어제(7일) 화상으로 개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이번 기술협약은 지난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양국 내부의 검토를 토대로 기술적 사안에 관한 입장을 조율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각각 내부적으로 관련 부처 협의 등 추가 논의와 최종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남아 있어 한 차례 추가로 회의를 개최한 후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다음 회의 일정은 외교체널을 통해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일 당국은 지난달 25일 일본에서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다.

한일은 국장급 실무자급 협의를 통해 지난달 12일 리우리아나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요구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당시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방류 점검 과정 한국 전문가 참여 ▲방류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및 해당 사실 공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박 차장의 이날 발언은 이들 요구사항에 대한 양국 논의가 긍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박 차장은 실무선에서는 한국 전문가의 오염수 방류 과정 참여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과거 최종 결정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하는 것”이라면서도 “실무협의 등 여러 단계에서 일본 측이 현재까지 크게 반대의 사는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그는 다만 “언론에 어느 정도까지 설명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양국 협의 내용”이라며 “이 정도까지가 설명이 양해된 것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회의 끝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일본 측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지지 표명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날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 사실관계 확인과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전제 자체가 사실이 아닌데 그에 대한 정부의 견을 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주호 “특수교사 늘려 장애학생 교육 지원”

“문제행동 대응기준도 마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 장애학생에 대한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업과 생활지도 부리가 어려운 유아교육의 특성을 고려해 학부모와 유치원 교사 간 합리적 소통방안을 마련하고, 교원집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유아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8일 오전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수교육 교원, 유치원 교원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 서초구에서 2년 차 신규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뒤 교원집회 논란이 일자 초·중등 교원,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특수교육 교원과 만난 이 부총리는 “특수교육 현장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애학생의 행동 문제로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등의 상황이 있다”며 “(교육부도) 장애학생의 심각한 위기행동 중재를 위해 노력했지만, 특수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논란으로 장애·비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현장 우려도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당정 협의도 있었고 진전이 많았다”며 “(특수)교사 정원 늘려야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고 교원문제도 해소 가능하데, 특히 정원은 곧 발표하겠지만 대폭 증원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은 이달 발표할 교원보호 종합대책과 교원의 생활지도 고시에 포함 하되 학생의 문제행동 대응을 위한 세부적 가이드라인은 연말까지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특별지원관은 “(이달 발표할 생활지도) 고시에는 교원보호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을 것이고, 문제행동·도전행동에 대한 우려가 커서 그에 따른 지원 가이드라인은 하반기에 따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이주호 부총리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도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지킬 수 있도록 유아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8월 말까지 마련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상담 범위 등을 담겠다”며 “학부모·교원 간 합리적 소통 기준을 마련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원장은 물론 교육감이 사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잼버리, 이젠 전국으로...버스 1천여대 나눠타고 128곳으로 이동

11일 상암경기장서 K-팝 콘서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조기 폐영하면서 참가 회원들은 8일 새만금 야영장을 떠나 전국 8개 사·도에 마련된 128개 숙소로 이동했다.

경찰은 버스 1014대에 나눠 타고 대이동에 나선 각급 스카우트 대원들을 헬기까지 동원해 에스코트했다.

전국 지자체와 대학교, 기업들이 앞다퉈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나서면서 156개국 국적의 스카우트 3만7000여명은 단 하루 만에 추진된 대이동에 따라 새 숙소로 집을 풀었다.

태풍 카눈의 복상 소식에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버스 1014대에 나눠 타고 새만금 영지를 떠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세종, 충남·북, 전북 등 전국 8개 사·도에 있는 128개 숙소로 분산, 수용된다.

새 숙소는 정부 산하기관이나 대학교 기숙사, 기업 연수원 등으로, 해당 기관들이 흔쾌히 숙소 제공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하루 만에 추진된 대규모 이동에도 숙소 마련 등에 큰 혼란은 없었다.

2023 새만금 잼버리의 피날레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K-팝 공연이 장식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1일 오후 7시부터 두 시간 동안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월드컵경기장(상암경기장)에서 새만금 잼버리의 폐영식 이후

K-팝 콘서트를 연다고 밝혔다. 콘서트 출연진 등 공연의 구체적인 구성과 진행 내용은 추후 공개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마지막 날인 8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진행 상황을 챙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참모진과 회의하며 새만금 야영지를 떠나게 된 스카우트 대원의 수송·숙박 현황, 문화 행사 관련 보고를 받는 등 전반적 상황을 점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대책반을 비롯해 정부 전체가 잼버리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

## 국힘 “잼버리 예산 잘못 드러나면 엄중 책임”

“1000억원대 집행 감사 이뤄져야”

국민의힘은 8일 ‘2023 세계잼버리대회’ 부실 준비 논란과 관련, 1000억원대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5년 임기에 걸쳐 대회를 준비해 왔다는 점과 집행위원장과 조직위원회 구성원 대부분이 야권 인사라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돌리는 포석으로 읽힌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잼버리 성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은 물론 간접 사업비만 해도 무려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회가 끝난 이후 국민의 혈세가 적절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예산 운용과 대회 준비에 방만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잘못이 드러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와 관련 YTN 라디오에서 “어쨌든 정부 차원의 감사는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이 MBC 라디오에서 “(예산) 어떻게 썼는지 다 감사도 하고, 정부 부처 특히 책임주무 기관이 여가부와 전북도 야닌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낱알이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 나와 특별수사본부 수사 등을 통한 법적 처벌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주최 측의 잦은 해의 출장 논란과 관련해 “열빠진 공직자들”이라고 비판하며, “끝나고 나면 대대적인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대한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